



주일설교 말씀나눔지

2024. 1. 14

「사무엘상 열여섯 번째 말씀」

##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

Those Whom God Help

사무엘상 11장 1-11절

- 
1.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2.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3.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4.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5.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6.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7.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오니라
  8. 사울이 베섹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9.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10.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11.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 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돌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 

1. 오늘 본문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유다 지파의 야베스 족속에게 전쟁을 촉발시키는 장면입니다. 내가 건 싸움이 아니라,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싸움들, 전쟁들은 누구에 의해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은지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2. 2절을 읽어보면, 이 전쟁에서 평화와 중재의 가능성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때 이 사실을 듣고 누구 가장 아파하고, 누가 가장 분노했었나요? (3-7)
3. 하나님은 결국 동족과 이웃의 안타까운 현실을 듣고 가장 아파하고 가장 분노했던 이들을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4.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이고, 야베스 사람들은 유다 지파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지역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따지면 교단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도록 합시다.
5. 하나님은 출신과 지역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롬 12:15) 이들을 사용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핵심 가치관을 교회 안에서 적용해보고 또한 가정 안에서 적용해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씩 내 삶에 적용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합시다.



캔사스중앙글로벌감리교회

Central Korean Global Methodist Church of Kansas